

광주 중기·전남 가계 '코로나 대출' 급증... 잔액 50조 돌파

지난해 광주·전남 가계대출 4조8000억·중기 8조2000억 ↑ 광주 중기·전남 가계 잔액 증가율 두 자릿수 '전국 평균 훌쩍'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수요(여신·대출)가 몰리면서 지난해 광주·전남 가계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각 5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대출은 전남이 가파르게 늘어났고, 중소기업 대출은 광주 증가율이 삼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대출금 잔액은 가계대출 54조 6568억원, 중소기업 대출 52조4884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부문 대출 잔액이 각 5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해가 처음이다.

한 해 동안 대출받은 금액으로 따지면 광주·전남 가계대출금은 4조7958억원으로, 전년(2조8692억원)보다 67.1%(1조9266억원) 뛰었다. 중소기업 대출금은 8조1985억원으로, 전년(5조591억원)보다 62.1%(3조1394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에서는 생계비,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운전자금을 대

출하며 빚으로 버텼다. 전남은 가계대출, 광주는 중소기업 대출 부문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먼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보면 전남이 10.6%로, 서울(12.6%)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3%)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 서울과 전남에 이어서는 부산·대구(각 9.0%), 광주(8.7%), 경기(7.8%), 대전(7.0%), 인천(6.7%), 세종(6.1%), 충남(5.5%), 전북(4.8%), 강원(4.2%), 제주(3.3%), 충북·경북(각 2.5%), 울산(2.4%), 경남(1.2%) 순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전년과 크게 다르다. 지난 2019년 가계대출 증가율 1위는 광주(7.4%)였지만 이듬해 1.3%포인트 상승했음에도 순위는 내려갔다. 반면 전남은 7위(2019년 4.7%)에서 지난해 2위로 다섯 계단이나 경계 뛰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는 광주 증가율이 최상위에 올랐다. 지난해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가율은 세종(18.7%)에 이어 광주가 15.5%로 2

에 들었다. 광주도 지난 2019년 5위에서 이듬해 2위로 세 계단 뛰었다. 전국 평균 12.1%를 웃돌았는데, 전남은 10.4%로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에 이어서는 경기(13.4%), 인천·서울(각 12.8%), 경북(12.3%), 충북(12.1%), 대전·강원(각 11.7%), 제주(11.6%), 충남(11.5%), 부산(10.8%), 전남·전남·대구(각 10.4%), 울산(8.8%), 경남(7.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금은 4조3909억원, 비은행은 3억8076억원으로 나뉘어졌다.

1년 전에 비해서는 각각 102.9%(2조2263억원), 31.5%(913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2조3268억→4조7767억)됐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수신은 증가 폭이 축소(6조6852억→5조8501억)됐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예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심리가 퍼지고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자금이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유입됐다"며 "단 펀드 환매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감소(-1742억)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일 이창기(가운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과 신목포지점 직원들이 '마케팅 현장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소통 힘쓰자” 전남 농협은행 현장 교육 돌입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체 개발한 마케팅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 등은 농협은행 신목포지점을 방문해 2주간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램프(LAMP) 현장 교육에 들어갔다.

램프(LAMP)는 '리딩 액션 마케팅 프로그램' (Leading Action Marketing Program)을 줄인 말로,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농협은행의 마케팅 교육이다. 과정은 사무소, 개인, 마케팅 습관 형성 등으로 나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마케팅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직원 간 소통과 협동 정신을 키우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이 지난 2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를 통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역 결손가정 청소년 20명에 전달되며, 광주은행은 6년 동안 총 6000만원 상당 교복을 후원해왔다. (광주은행 제공)

6개국 통합 기술교류 상담회 중진공 광주본부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6개국 통합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에 참가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기술교류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우수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기술이전을 원하는 해외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라이선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공정이전 등 방식으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5일간 6개국 통합 상담회를 진행한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과 일본, 신북방(러시아·카자흐스탄), 신남방(말레이시아·인도) 국가가 대상이다.

'기술수출 성공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도 열린다.

국가별로 최대 10개사까지 모집하며 기업은 동시에 2개 국가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기술컨설팅을 통한 기술 진단 후, 매칭성사 가능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상담회 참가 후 계약서 법률 검토, 후속 상담에 필요한 통번역 등을 연내 2회, 회당 300만원 한도 이내로 맞춤형으로 후속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해외기술교류 홈페이지(www.g-tep.or.kr)에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2021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광주테크노파크, 최우수 'S+등급' 선정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고 3일 밝혔다.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지역별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는 정책기획 플랫폼 및 기업지원 플랫폼 부문으로 나눠 공동 운영하고 있다.

광주TP는 정책기획 플랫폼 부문에서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억원(국비) 확보 이외 사업비 7000억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14개사 436억원 투자협약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또 데이터 기반 지역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성과DB, 기업DB, 장비DB, 산업DB 분야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인 'GJDP'를 구축했다.

이밖에 기업지원 플랫폼 부문은 기술교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과제발굴 및 기획지원의 성과

로 5개 과제가 총 42억 규모의 연구개발(R&D) 과제에 선정됐고, 정책 기획 및 기업지원 플랫폼 부문간 협업을 통해 시비 6억원 규모의 지역수요 연계 유망품목 상용화 지원 시범사업을 발굴·수행하는 등 지역기업의 수출계약 등을 이끌어냈다.

김선민 광주TP 원장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지역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82.99 (+39.12)
↑ 코스닥	930.80 (+7.63)
↓ 금리 (국고채 3년)	1.019 (-0.002)
↓ 환율 (USD)	1120.30 (-3.70)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은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은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최신간 양장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